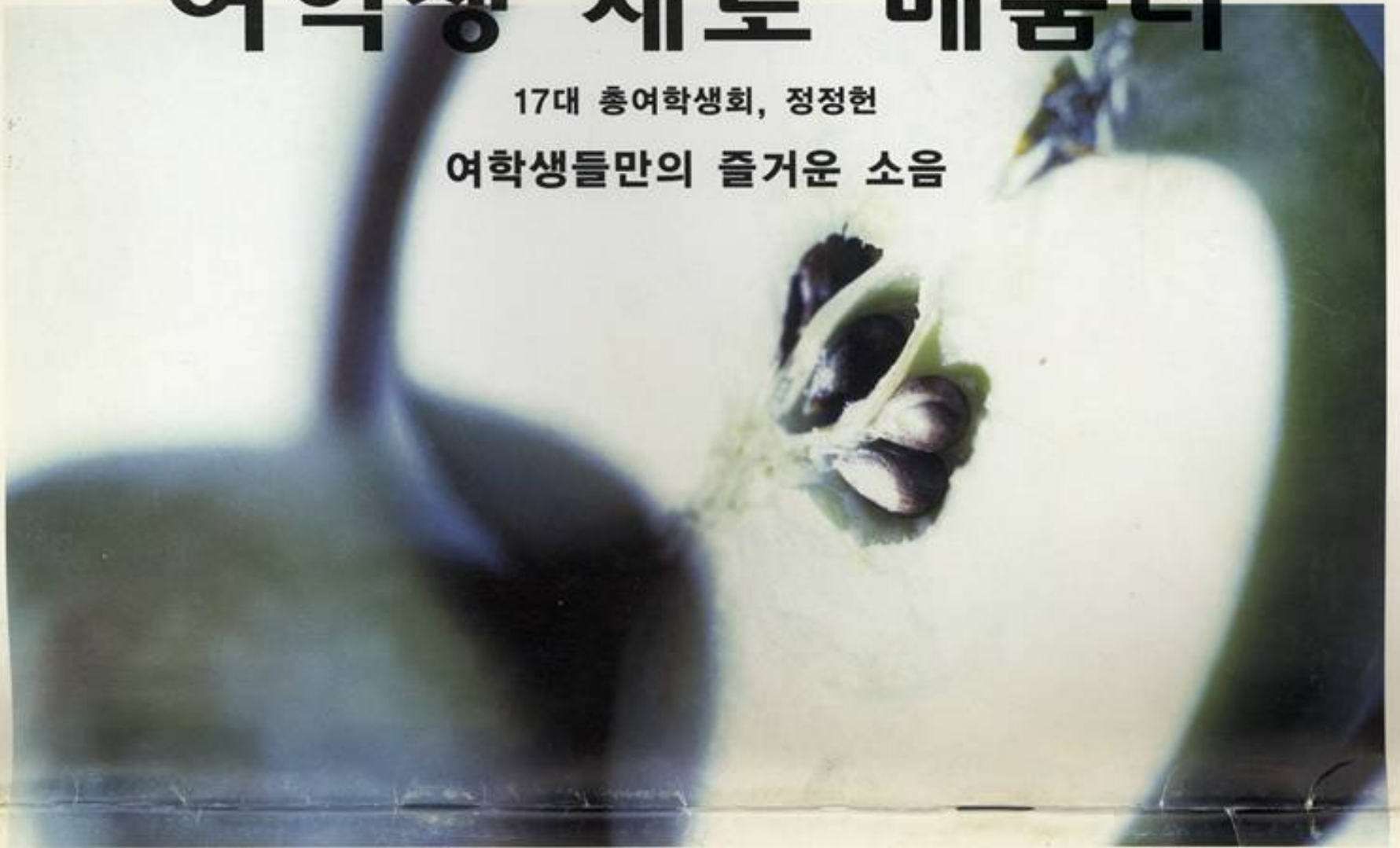


여학생 새로 배움터

17대 총여학생회, 정정현

여학생들만의 즐거운 소음



목 차

여는 시

여새터를 준비하며

일정설명

총여, 정정현 소개

반성폭력학칙 제정의 과정

[기획글]

한국사회의 문화에 대한 여성의 시각

-매니아가 되고 싶었던 모모양

김군비디오에 대해...

-백지영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선택!

[보론]

-군가산점과 비정규직에 대한 짧은 생각

읽어 볼 만한 책

가 볼 만한 사이트

여는시

모두가 하나잡아요

-박찬숙-

(엄마) 아가야 엄마가 살아온 세월 속엔 흐리고 차가운 비바람 부는 날 많았단다.
엄마의 눈엔 늘 질푸른 강물 같은 눈물 가득 고여 있어 흐릿했단다.
세상 많은 외로움 중에 엄마만이 간직한 가슴저린 사연들 너무 많아 슬펐단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 세상에서 여자로 산다는 건
또 하나의 무게로 고통을 짊어진다는 것

(딸) 엄마 나는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모두 엄마뎌처럼 따뜻한 줄 알았죠
나도 여자라는 이름 때문에 아파해야 한다면 그건 너무 화나고 답답한 일이에요
말도 안되는 일이잖아요
엄마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요
세상의 모든 딸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제 곧 우리도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어요
그러나 더 이상 체념 한숨 싫어요

엄마, 딸) 다시 눈물 흘릴 필요 없는 평등 세상 만들어요
모든 딸들이 축복 속에 태어날 거예요
모두가 하나잡아요

여새터를 준비하며... ^^;

대학이란 새로운 공간에서 출발을 앞둔 새내기 여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100일부터 9명, 8명, 7명일을 다 챙겨가며 보았던 수능 시험. 두려움에 가슴떨리며 놓렸던
ARS전화번호, 인생을 다 얻은 듯 황홀케 하던 팡파레소리...이제 4년 아니 그 이상을 함께
할 선배와 동기를 만나는 새터. 그리고 여새터!!! 아직은 대학생활이 감도 잘 안잡히고 참
많이 궁금하시죠?

4년 동안 생활 할 공간에 대해 알아나가는 기간이 전체 새터(O.T)라고 한다면, 여새터는 우
리 사회에서 '여성은 자고로 이래야 한다....'는 편견을 벗고 여학생들만의 독창적인 문화
를 만들고 그것을 즐기기 위한 기간입니다. 여새터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내기 여
학생 여러분들은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어느 누구도 아
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인가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사회에 대해 왜 그래야 하는 건지
의문을 던져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
고 규정지어야 하는지를, 왜 남자를 위해서는 여자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새내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셔서 재미있
으셔서도 뭔가 얻어갈 수 있는 알찬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행복해 하며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멋진 새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일정설명글...^^

여새터의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문화전반에 걸친 가부장적이고 남녀 차별적인 편견에 따지를 걸어 근거없는 차별적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성문화강연회:

여성민우회 강사분이 약 두시간 정도로 해 주실 이 강연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성문화와 성교육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 반(反)성폭력학칙설명회:

지금 학내에서는 학교와 총여학생회가 반성폭력학칙을 제정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이 사회의 지성인 대학에서도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학칙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그런데 학칙제정과정에 있어서 학교의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태도 때문에 학내 여학생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총여학생회와 함께 해보는 자리입니다.

· 역할극: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 것은 다 아시죠? 신문에 난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에서부터 무시코 하는 말 한마디까지 우리는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역할극은 이런 성폭력의 경험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 장기자랑-노래, 드라마 바꾸기:

'...남자는 뭐니뭐니해도 내세울건 능력이라지만 여자는 곧죽어도 미모란 사실을...' 우리가 신나게 불렀던 노래가사 하나에도 여성을 예쁘게만 하고서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대상으로만 보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녀 모두 어느 한쪽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며 내면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노래나 드라마에 따지를 걸고 반대로 바꾸어 보는 시간이지요. '힘모아 힘울조'에 맞추어 사회자의귀여운 율동과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중이지요^^

· 여성주의 체육대회:

체육대회때 여러분은 뭘하시나요? 남성위주의 종목채택에 여성들은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죠. 농구, 축구를 하려해도 그건 남자들의 운동으로 치부되어 여자팀은 꾸리기도 힘들고 농구와 농구보다 다른 놀이를 좋아하는 여성들은 흥도 나지 않을테죠? 여성주의 체육대회에는 주변의 편견을 무참히 깨고 다양한 여성의 흥미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기존에 남성만이 하는 것이라 못해서 불만이셨던 분들, 제기차기와 농구를, 나만의 놀이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고무줄과 공기를, 거기에 협동심까지.....정말 쎈나겠죠!!!!!!

일정표

17일	18일
10:00 출발	09:00 회합식
12:30 도착 및 방배정	11:00 체육대회
1:00 점심식사	1:30 점심식사
2:00 세크레시언	3:00 출발
3:00 성문화강연회 (강사:여성민우회)	5:30 도착
5:00 역할극 반성폭력학칙설명	
7:00 회합식	
8:30 장기자랑	
11:30 세크레시언	



안녕하세요? *~o~*

대학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대학엔 총여학생회가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왜 총남학생회는 없는데 총여학생회만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왜 총여학생회란 단위가 학생회와는 별개로 필요한 것일까요?

흔히 대학이라는 공간은 가장 자유롭고 진보적인 곳으로 생각하고 있죠? 일정부분 사실이지만, 여성의 눈으로 대학을 바라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변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지성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가 규정지어둔 '여성'이라는 이름속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리통이 심할 때,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여학우 휴게실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성을 위한 공간배정은 항상 뒷전입니다. 이러한 학내의 가부장성 고리 속에서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학내의 구성원이며,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가 학내에 당당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 단위들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아 반(反)성폭력 학칙'이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남성과 평등하게 고용되고 경쟁할 수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대학이 되어 총여학생회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총여학생회는 노력하겠습니다.



眞精軒(정정현)이란 옛날 남성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했던 옛 여성들의 문화 공간을 가리킵니다. 정정현은 대안적인 여성주의 담론의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고자합니다.

저희는 올해로 30번째 "정정현" 발간을 기획하고 있는 정정현 편집위원회입니다. 정정현 편집위원회는 독자적인 학내 언론기구로서 여성주의 교지를 제작·발간합니다. 사회현상, 가부장적 자본주의,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공부하고 그에 기반하여 여성주의 담론의 생산과 소통을 시도합니다. 그 결실로 1년에 한번 "정정현"을 발간하며 또한 학내에 머물지 않고 on-line상에서의 페미니스트들의 연대와 여성주의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웹진(小心) - <http://sosim.jinbo.net> -을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와 연대하여 학내 행사를 기획해 왔으며 외부 전쟁성노예(군위안부합머니) 반대 활동과 기지촌활동등사회단체와 연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독자적인 대학내 언론기구로서 여성주의 교지를 제작하는 곳은 고려대학교 "석순"과 저희 정정현 두곳 뿐입니다.

정정현편집위원회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반성폭력학칙 제정의 과정

총여학생회장 정이 연회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규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이제 반성폭력학칙이 제정된다. 새내기들은 이러한 사실에 단지 '내가 다니게 될 학교가 성문화 수준이 높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반성폭력학칙의 제정은 학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올바른 성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반성폭력학칙 제정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 당국이 학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지는 태도와 그 제정 과정이다.

지난 수년간 총여학생회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이러한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반성폭력학칙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들을 벌여왔다. 총여학생회 학칙제정위원회에서는 학칙 가안을 작성, 검토한 후 학교측에 제시하여 학교당국과의 만남을 가지는 한편,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에 대한 모의 투표'나 '성폭력 관련 학칙 공청회'를 통해 학우들의 동의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 속에서도 '학칙제정'의 실질적 결과물을 얻지 못한 것은 학교당국의 태도 때문이었다. 학내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어 언론의 공격을 받을 때는 학교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학칙제정에 적극적이었다가 이후 사건에 대한 소란이 가라앉을 때면 공무니를 빼는 태도를 거듭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서울대학교의 반성폭력학칙 제정과 교육부의 지침 등 사회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학교측은 학칙 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돌변한 것이 긍정적인 현상만은 아니었다. 학칙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규정위원회는 문서 자료 외에는 학생측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학우들의 입장을 반영시킨다는 명목하에 그동안 성폭력 사건을 말아왔던 총여학생회와의 대화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반성폭력학칙의 목적에 대한 기본 원칙부터 총여학생회와 학교측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둘 사이의 입장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측이 취한 태도는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설득해 나가는 대화과정이 아니라, 학교의 권위를 이용하여 총여학생회의 주장을 묵살하는 것이었다. 결국 반성폭력학칙의 가안은 총여학생회의 입장이 거의 깔려나간 채 규정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측이 생각하는 반성폭력 학칙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정조를 잃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 이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학칙제정으로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한다 할지라도 학내 성문화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사건의 처리 이후에도 계속하여 발생할 제2 제3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못한 채로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반성폭력학칙 가안이 학칙으로 제정되었을 때 과연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이다. 오히려 반성폭력학칙이 제정됨으로써 성문화 개선의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기까지하다.

현재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학칙 가안의 내용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의 두가지이다.

피해자중심의 원칙 vs 법철학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입장과 상태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죄인 취급을 받기 쉽다. 성폭력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면 피해자가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질문이 '이전에 성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사건 당시 옷차림은 야하지 않았는가' 등이다. 마치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도했다는 듯이 말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2차, 3차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총여학생회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이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의 해석과 그 사건의 처리에 있어 그 판단 기준은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 입각하고 또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과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성폭력학칙에 넣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학교당국도 동감하지만 이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므로 굳이 조항으로 넣을 필요가 없고 법철학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선 사건 처리라는 내용이 절대로 법을 조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은 피해자를 오히려 죄인 취급하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또, 반성폭력학칙은 법철학을 준수하기보다는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을 지닌 학칙이어야 한다.

공개 vs 비공개

반성폭력학칙이 단순히 가해자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기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다수가 성폭력에 대한 무지와 오해들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었고 현재 성균관 대학교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성폭력에 대해 둔감해지게 되었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는 어떠한 것들이 성폭력으로 규정되며 우리 학내의 성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 학우들과 공유함으로써 성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해낼 것이다. 그래서 총여학생회는 학교측에 '피해자가 사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한 여성이 '정조'를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 큰 데 그 상황에서 사건을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성폭력은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결정권 침해'의 문제이다. 즉,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폭력이다. 그러나 가부장제가 뿌리깊이 내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은 정조의 문제로 사고되고 있고 학교당국이 사건을 공론화시킬 수 없다고 한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성폭력이 정조의 문제로 사고되는 이상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일을 수치스러운 일, 은폐시켜야 하는 일로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 호소하기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은 한 여성이 정조를 잃은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은 사건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공개함으로써 학내 성문화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매니아가 되고 싶었던 모모양의 좌절된 꿈과 사랑 그리고 인생

누구나 중고등학교 시절 누구에게(특히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도 몰래(특히 부모님 몰래) 열심히 매진했던 작은 꿈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이다음에 의사가 되겠다는 거대한 것도 아닌, 오히려 현실적인, 혹은 거대한 꿈을 향한 발걸음이 처음 때 관심을 돌림으로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때로는 그것에 대한 열정이 서슴없이 전자의 것들을 넘어서기도 하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맞을까요? 혹자는 그것을 '문화'의 일부분이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이 거꾸로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면서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의심스러워지더라 이말입니다. 생각이나 체계와 같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작은 숨을 내뿜는 공기. 그것이 혹시 이제까지 줄곧 오염된 것은 아니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숨쉬고 있었는가.

제목 그대로 나 모모양은 매니아가 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과격한 사운드와 현란한 기타리프를 가지지 않으면 음악이 아니더라고 단언하는 주변의 남자 친구들을 보면서, 혹은 <드래곤 볼> 42권과 <3X3 eyes> 수십권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만화의 스케일을 말하고 그냥 지저분해보이는 <형제>등의 학원물 만화를 걸작이라고 평가해내는 다른 이들을 보면서 아마도 나는 여학생이 설치면 망가지는 것 밖에 더 없는 우스운 동네에서 뭔가 후카시가 잡히면서 있어보이는 그런 '류'에 끼어 내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가 부여되는 상황을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한층 높은 지식수준과 말빨과 외모로 분위기를 휘어잡아 말 한마디에 좌중의 동경이라는 '권위'가 부여되는 상황에서 오는 쾌감은 인간존재의 기본적인 무엇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돈도 명예도 부여되지 않는 이때의 그 묘한 '권위'의 정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 무엇에는 권위가 부여되고 다른 무엇에는 그렇지 않은건지? 아마도 이것이 나의 회상이 추적하게 될 주제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그때, 그 언제로부터 매니아가 되고 싶었습니다.

rock과 매니아 - 매니아는 맨인가?

하지만 그 권위는 처음부터 나에게 주어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매니아가 되고 싶었던 그 긴 여행의 끝이었다면 아주 우스운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것도 진부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여/자/라/서. 하지만 아직, 이 상황을 깨닫기까지 모모양에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상황은 진부하다는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할 듯 하군요. 더 들어보세요.

매니아는 맨인가? 라는 부제를 보고 언뜻이라도 서태지를 떠올린 분들이 계시겠죠. 어느 인터넷 매체가 평했듯이 서태지가 대중적 인기와 음악성을 동시에 갖춘 '뮤지션' 입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 역시 서태지를 그의 데뷔 당시부터 무척 좋아했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매니아가 되고 싶었던 지라 평론이란 평론은 마구 읽어왔던 저는 언젠가부터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그들은 당연히 자타가 공인하는 '매니아'겠죠?)이 서태지를 칭찬하면서 심심치 않게 지나가는 말로 "서태지는 다른 댄스 가수들과 틀리다 왜냐하면 어찌구 저찌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다른 가수들과 달리 서태지에게 남자팬이 많다는 것은 주목해야 한다"고 쓰는 것을 목격했었는데 그때 매니아가 되기 위해 정진하는 나 자신을 슬그머니 남자팬에 끼워 넣으며 그 말 속에서 정말 우습게 되어버린 다른 댄스 가수들 및 서태지를 좋아하는 여자애들과 스스로는 질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긴 누구라고 그 글을 읽고 스스로를 그토록 우습게 되버린 집단-여자에 넣어보고 싶어하겠습니까) 얼마 전 나는 잡지 한권봉이에서 작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핼프록을 들고 돌아온 서태지의 남성팬과 여성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서태지의 남성팬들이 여성팬들을 구루피라는 경멸적인 호칭으로 부르고 인터넷 사이트에 남성팬 전용게시판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당연히) 여성팬들의 거센 반발이 있다는군요. 핼프록은 핼프(pimp:포주)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을 경멸하는 가사내용을 담는 것이 보통이고 공연장에서는 이에 맞춰 과격하게 몸을 부딪히는 슬럼이나 무대위에서 뛰어내리는 다 이브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태지의 노래들에 여성비하적인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성팬들은 남성주의적인 사고방식에까지 매니아가 되었는지... 아마도 그들은 그 게시판에서 매니아로서 서로를 만나 '진정한' 음악을 즐기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매니아가 되고자 정진했던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음반을 사고 공연장을 채운(도대체 음반을 사고 공연장을 채우는 사람들이 매니아가 아니면 누가 매니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여성팬들은 그 게시판에 접근불가가 되어버렸다는군요.

나는 당시 '매니아'들이 모인다면 흥대알 라이브 클럽 역시 종종 방문했었다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이들이 복음악에 맞춰 슬럼과 다이크, 헤드뱅잉등을 하였고 저 역시 열심히 흥내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어느날도 주변의 단단한 남자 애들에게 치여 온몸에 멍이 들면서 공연을 보고 나오는데 옆에서 과격하게 슬럼하던 어떤 남자가 옆친구에게 그러더군요. "에이씨 여자애들 X나 짜증나. 짹 짹 소리질러대서 귀 X나 아프다니깐" 누가 스스로의 흥겨움을 표현하는 것은 권위 떨어지는 짜증나는 것이고 누가 일 관객들 몸에 멍들게 하는 것은 복음악을 즐기는 한 방법이군요. 누구는 그걸 슬럼이라는 용어를 붙여 포용나게 말할 수 있지만(여자아이들의) 소리지름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이름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때서야 어렴풋이 머릿속에 들어오더군요.

그러나 대학에 와서 나는 나와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용감하게 나와 우리의 즐겁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이름을 주어보려는 움직임 발견하였습니다. 지난해 봄 연세대에 서 열렸던 여성뮤지션들로 이루어진 여성음악축제 '여악여락'(여성이 음악을 하니 여성이 즐겁다)이었습니다.

"음반 시장과 소극장 공연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이들은 다름아닌 20대 여성들이다. 말할 것도 없이 방송가를 움직이는 주체는 10대 소녀들이다. 여성 가수의 음악은 안 된다는 음반계의 오랜 관행을 깨고 최근에는 여성 가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여성 뮤지션과 팬들의 엄청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디까지나 '객체'에 머물러 있다. 구색 맞추기식 메뉴의 일환으로 음반 판매량과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마케팅 대상 0순위로." "오빠부대, 빠순이, 구루피... 그 지독한 냉소 누구는 팬이고 누구는 오빠 부대냐? 누구는 스토커고 누구는 빠순이냐? 누구는 매니아가 누구는 구루피냐? 공연장을 채우고 합성을 모아도 가요톱텐, 인기가요, 핫트가요 지하클럽, 소극장, 대형 경기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누구 하나 우리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주지 않았다."



〈사춘기〉이진영이나 〈쿨하트〉 유사진이 〈누들누드〉보다 못한 이유?

한겨레에서 권위있는 만화전문가들에 의해서 '한국만화 걸작 20편' <http://www.hani.co.kr/cartoon/data/0b68bd01.html> 이 선정되었습니다. 한국만화에서 순정만화가 남성만화와 분리되어 작품성과는 관계없이 폄하되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한국의 대표 만화들이 거의 남자만화들로 채워져 좋은 작품 다 두고 〈라젠카〉같은거나 영화로 제작해서 팔아먹는 작품의 사태를 보면서도 그냥 그런가보다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벤벤스러울 정도로 대단한 성적 상징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이 작품은 유일하게 평가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모두 추천한 작품이기도.....영광하고 상큼한 재미로 남성 만화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1999.11.12 한겨레)라는 1위로 선정된 〈누들누드〉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만화 걸작인지 한국남성만화 걸작인지 조금씩 궁금해지더군요. 도대체 고민속에 순간순간 살아있는 인물들과, 뼈속까지 찌르는 대사, 나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쿨하트〉이나 〈사춘기〉가 〈누들누드〉보다 못한 이유는 매니아가 될 자질이 없어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평론가들이 다 남자인 판에 접근하는 놈의 손을 물어뜯고 전방진 남자는 패서라도 버릇을 가르쳐주는 내용같은 걸 누가 뽐냈습니까. 그러므로 아주 자연스럽게 근거도 없이 여성들이 만들고 소비하는 만화는 삭제당하여 소위 '작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누들누드〉나 〈열혈강호〉만이 남아있게 되고 매니아가 되고 싶은 모모양은 이제 〈쿨하트〉와 〈사춘기〉를 멀리하고 〈누들누드〉나 보면서 불편함을 숨기고 그 기발하다는 상징들에 쓴웃음이나 지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모모양은 무얼 하냐고요? 이제 모모양은 매니아가 되고 싶은 꿈을 버렸습니다. 그건 사실 좌절된 것이라기 보다는 알고보니 너무나 별볼일없는 것이어서 버렸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 합니다. 여자애들이나 보는 순정만화는 멀리하고 기발함이 돋보이는 〈이나중 탁구부〉같은 만화만 봐야 한다는 누가 만들어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할 그 기준들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칙한 선언이죠. 저는 지금 저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과, 좋아하는 방식들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에 더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지 좋아하는 것은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고민들로 그것들을 비판하고 받아들이고 채워나가는 일입니다. 지금 모모양은 맘놓고 상쾌하게 호흡할 수 있는 진정한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중입니다.

추신: 모모양은 누구일까요?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모모양은 지금 수 안보에 와 있습니다. 모모양이 누구인지 한번에 맞추시는 분은 저녁 술 자리에서 이 글의 나머지 부분-모모양의 사랑과 인생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행운을 드립니다.

김군비디오에 대해...

〈백지영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선택!〉

우리는 지난 00년에 백모씨의 딸 백양에 대하여 질리도록 떠돌아다녔다. 그리하여 최초의 탈북자 김만철씨에 버금가는 기자회견까지 열리게 되었다. 우리는 백지영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맨얼굴로 엄청난 우는 것을 냉정히 관찰한 다음, 한편에서는 백양이 빨간 코드를 입었다는 둥 시시 답지 않은 농담을 하였고, 한편에서는 그녀가 너무 불쌍하다고 수근댔다.

열집에 도깨비가 살아도 모르는 우리가 돈거래 한번 없었던 백양에 대해 그토록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 나라를 망쳤다고 감옥에 갇혀한 상도중 사는 김모씨도 내용보면 누구도 가만 두지 않으리라는 마당에 돈을 때먹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한사람 죽인것도 아닌 백양이 국민들 앞에서 사회를 해야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기위해 우리는 철 지난 얘기를 다시 꺼내려한다.

백양에 대해 비판을 하든, 동정을 하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라고들 말한다. 여기서 그런일이라 함은

- ① 자신의 알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였다.
- ②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혼외정사를 벌였다.
- ③ 자신의 응웁션을 비디오로 찍었다.
- ④ 그 비디오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이렇게 4가지로 압축될수 있다. 지면관계상 백가지의 이유도 만들 수 있지만 때도록 하자.

우선 ①의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버젓한 알몸을 찍어서 책으로 만들고 돈받고 파는 세상에 이것이 그리 죄가 되는가. 더구나 자신의 알몸을 보여서 국민의 환대를 받은 이승희씨도 있는데.

②의 이유도 말이 안된다. 여기서 섹스는 결혼한 사람하고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세상 사람 모두되는데 백양만 안된다는 것인가. 더구나 그 두 주인공은 애달린 유부녀, 유부남도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의 국호는 조선이였다.

③번의 어거지를 말하자니 입이 아플지경이다. 자기 돈으로 카메라 사서 자기가 찍는데 옆에서 감파라, 배파라하다니. 인간의 고귀한 인류보호의 장면은 비디오로 찍어서는 안된다는 말인데, 길거리에서 1000원에 파는 그 무수한 테이프는 무엇이더냐.

④번은 진짜 백양의 입장에서 억울하다. 누가 보라고 떠밀었는가. 보지말라고 모두 말리는데 해킹까지 해서 봐놓고 자기가 욕을 하더니! 진짜 적반하장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4가지 요소모두 백양이 잘못된 것은 없다. 혹자는 너무 격렬한 응웁션이라고 비난하는데, 사실 당신은 그것 때문에 본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섹스란 모름지기 경건하고 엄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 자신이나 그렇게 해라. 또 연예인들은 다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막상 이런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수 있느냐고 따지니 참으로 세상은 요지경이다.

결국 백양이 국민앞에 사죄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백양이 백군이 아니라는 사실과 백양이 순결한 여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대놓고 순결을 잃었네라고 말하는 인간은 없어도 결론은 순결이데올로기다. 21세기가 왔다고 폭죽 터뜨려도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갓쓰고 호령하고 있다. 옷만 유행따라 바뀌 입으면 뭐하나.

여자이기 때문에 백양은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또다른 주인공은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출연한 홍보비디오를 자기가 돈을 받고 돌린다. 이는 오양은 미국에서 비참하게 숨어 사는데 그 상대 남자는 올대한민국에서 VJ하면서 돈버는거 보면 자~알~ 알 수 있다. 여자에게만 강요당하는 순결에 대한 허접함은 우리모두가 알고 있으니 그만두자. 나까지 나서지 않아도 짜증난다.

백양이 비디오를 찍는다는 것을 알았던. 몰랐던 자신의 동의없이 다른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사생활을 침해한것에 대해 느꼈을 모멸감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수없다. 집에서 몰래 코후비던 장면을 만천하에 공개되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라고 할까. 근데, 우리는 왜 코를 후냈냐고 비난하고 있다. 이거야 말로 하나도 안웃기는 코메디다.

결국 백양은 자기맘대로 비디오를 돌린 그 남자와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질질댔던 남자들에게 무참히 강간당했다. 그리고 백양을 더러운 걸레취급하며 손가락질한 여자들은 강간을 구경한 비겁자들이다. 그리하여 늘 그렇듯 강간당한 여자가 비난받았다. 이제 백양사건에 감추어진 추악성을 알아보자.

아직도 성(性)은 여자들을 억압한다. 그리고 남자들 또한 다른 형태로 억압당한다. 하지만, 여성에게 강요당하는 성은 그것을 어겼을 경우 사회에서 생매장을 당할 정도로 강력하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억압을 자신의 생각으로 갖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여자들, 바로 우리들이다. 더구나 세상은 변했다면서 순결을 지키려는 여자는 케케묵은 보수파로, 성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걸레파로 나누어서 여자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든다. 지금 우리 여성들은 순결을 지켜서도 안되고 순결을 잃어서도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결을 잃는등 마는등? 그래,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나.

그리고 자신의 성에 잃는다는 수동적 의미를 부여한 것부터 우리는 자신을 잃었다.

우리가 백양에 대해 더 이상 비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방귀까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있으면서 누군가의 방귀소리를 들으면 침뚫는 소리인 듯 웃어대는 것과 같은 메스꺼운것이다. 이제서야 우리의 위선을 깨달았으니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더 이상 남발에 맞장구나 치는 돌러리는 되지 말자. 우리는 스스로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성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성을 다른 사람이 강요하도록 놔두어서도 안된다. 성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자연스럽게 인정해 줄수는 없을까. 그사람이 디스를 피든지, 아리랑을 피든지 그건 그사람의 선택을 인정하듯이 말이다. 당신이 성에 대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성에게 잡혀있는 것이다. 당신이 성에 억압되어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동태에서 자신을 보이지 않고 떨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든지, 다른사람과 자기 자신을 인정하든지, 그것 역시 당신이 선택해야할 문제이다. 다만, 한번한 선택은 어쩌면 되돌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만 기억하길 바란다.

군가산점과 비정규직에 대한 짧은 생각

군가산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는 99년 겨울이 아니었나 싶다. 5명의 여성과 1명의 장애인인 진 군가산점 위헌 소송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각기 다른 반응과 입장으로 군가산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복학생 선배에게 군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사실 감정 싸움으로 끝날 수가 일쑤다. 모든 얘기의 귀결은 "그래 그럼 여자도 군대 가라" "군대도 안가는 것들이..."로 마쳐져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대 얘기 앞에서 이성을 잃고 부당함을 토로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반면 군가산점 폐지를 외치는 여성들은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독한년으로 찍히게 된다.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군가산점 폐지지 군보상 폐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군가산점에 대한 화두를 꺼내다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여성 취업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는점, 회사에서의 여성배제적인 시스템, 군대 문화, 대학에서의 복학생 문화 등등 이 모든 것이 얹혀서 드러나는것이 군가산점 문제인 것이다.

군가산점에 해당하는 남성들은 극히 일부인데 우리 나라 남성들은 자신이 이 군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군가산점 폐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성들에게 군가산점은 그저 상징적 의미로 위안일 뿐 현실적인 군보상 제도는 아닌 것이다. 이 군가산점으로 인하여 만점을 받고도 떨어지는 여성들에게는 치명타이지만 사실 대한 민국 남성 중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일부 계층이다. 여성들이 취업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에 사실 많지 않다. 입사한다 하더라도 평생 직장이 되기는 사회적으로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일부 직업(7.9급공무원, 교사 등등)은 여성들이 집중하는 편향을 보이게 된다. 군가산점은 이런 현실 속에서 여성 취업에 상당 부분 불합리한 장애 요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군복무 기간을 입사 기간으로 인정하여 호봉과 승진 인사 제도에서도 작용을 하여 여성에게는 이중 삼중의 벽이 되고 있다. 군가산점의 폐지는 앞서서도 말했지만 군보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군가산점의 논쟁이 여성과 남성의 싸움으로 대립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여성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과 장애인은 사회에서 권력의 소수자로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국가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한 지점이다. 현 군가산점은 정부에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보상도 하지 않고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집을 지우는 불합리한 제도인 것이다. 정부는 군가산점을 폐지하고 진정한 군보상 제도를 고민해야 하며 나아가서 왜곡된 군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오호 통재라. 여성 노동자는 비정규직이구려. 좌박사와 함께 하는 여성 비정규직 알기.

좌박사 이런.. 남성 임금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인데 비해 여성은 임금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군.

여기 있는 새내기 (이하 여기) 으음.. 비정규직이 뭔데요?

좌박사 아. 비정규직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비정규직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 즉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야. 정규직 먼저 이야기를 할게.

정규직은 일정한 임금을 받으며 정해진 휴가가 있고 4대보험(산재, 의료, 고용,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은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우선 고용 자체가 불안하며 또한 임금 액수도 정규직의 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단다.

여기 그렇게 안좋은 비정규직은 왜 있는 것인데요?

좌박사 97년에 뭐가 있었지? 그해 IMF가 있었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실업자가 늘어났단다. 그래서 정부에서 임금과 혜택이 그리 좋지 못한 비정규직 고용을 인정하였단다. 사업자의 입장에

서 임금을 적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

여기 그런데 말이예요. 왜 여자들이 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수가 많죠?

좌박사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자.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들의 성별은 무엇이지?

여기 여자요..

좌박사 그래. 여자가 대다수이지. 외환위기 이전에도. 이런 직업들이 바로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어. 이미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왜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자.

여기 여자의 특징을 알면 되겠군요. 여자들이 남자와 다른 점은.. 그래 결혼하면 살림을 해야 하고 또 아기도 낳아야 해요. 가정에서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빠는 돈을 벌어오는 모습이 일반적이잖아요.

좌박사 묻지 않아도 잘 찾아내었어.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자금을 만들지. 그리고 결혼하면 많이 그만두고 애 낳으면 거의 끝이라고 할 수 있지. 사업주들은 이런 여성들은 얼마 안 다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돈 잘 주어가면서 정규직으로 쓰려 들지 않아.

여기 하긴 그래요. 여성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해도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 치이고 하다보니 결국에는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죠.

좌박사 그나마 일을 하는 비정규직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줄게. 골프장 캐디 이야기를 해 줄까. 골프장에는 필 뿌리냐? 농악! 하루종일 그 위에서 있는 자는 누구냐? 캐디! 캐디는 건강을 위해 안경을 쓰느냐? 못쓰지! 왜 못 쓰냐? 미관상! 캐디는 손님들에게 성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 미모를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만약 캐디가 일을 하다가 공에 맞으면 누구 책임? 놀라지 마. 치료비는 캐디가 부담해. 캐디가 공을 못 피한 것이니까. 뭐. 아니꼬우면 관두라는식이야.

여기 정말 말도 안돼요!

좌박사 그래. 이젠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지난 여름에 롯데 호텔 파업한 것 알지? 비정규직 투쟁이었어. 여기서 갑작스레 불거져 나온 것이 쉬쉬해오던 성폭력 문제. 비정규직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해. 그렇지만 뼈저려서 안되는 것이 고용과 사용에 있어 여성들이 받는 불평등 철폐. 즉 여성 비정규직 철폐이지.여기 그냥 능력이 되면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구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라는 마이너리티 때문에 꺾여 살아야 한단다.

좌박사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여새터 기간 동안 선배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래.

읽어 볼 만한 책

『새여성학강의』, 한국여성연구소, 1999, 동넉

여성학의 교재로 널리 알려진 예전의『여성학강의』(한국여성연구소, 1991, 동넉)를 시대변화에 맞춰 말 그대로 새롭게 쓴 책이다. 입문자를 위한 여성학의 소개와 성차에 대한 설명은 물론 여성의 성과 육체, 노동, 문화에서 남성의 문화와 여성들의 차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여성학의 흐름을 개괄하는 데는 더 없이 적절해 보인다. 내용이 전보다 깊이있고 다양해졌음에도 딱딱하지 않게 쓰여져 쉽게 읽을 수 있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달과 입술, 2000, 동넉

현재 영페미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마야. 오노. 헤마. 다시 네 명의 젊은이가 쓴 여성운동 대학 생활편. 이들의 말대로 자신들이 “대학 생활을 하며 고민하고 경험했던 삶의 문제와 대학 여성 운동을 통해 발언하고 실천했던 내용을 자전적 형식의 에세이로 쓴 글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우리와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여성운동을 고민하고 풀어나가는지. 그 치열했던 삶과 운동의 방법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글의 형식상 피하기 어려운 단점 하나. 읽는 이의 경험 차이에 따라 극히 제한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듯.)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캐롤 타브리스, 히스테리아역, 1999,

또 하나의 문화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단다...? 사회심리학자인 저자는 이 몸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겉으로 보기에 사실 같은, 많은 개념들이 실은 남성의 논리로 만들어진 허구에 불과함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밝혀낸다. “만물의 척도”인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남성” 개념의 반대향으로서만 규정되어 온 여성에 관한 “진실”을 알려준다. 미국 대학의 여성학 강의에서 입문서로 쓰이는 책답게 다양한 연구와 이론을 개괄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드 브란튼베르그, 노옥재역, 1997,

황금가지이갈리아라는 공간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것 말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곳이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법.

“페미니스트는 별 거 다 트집잡더라” 혹은 “여성 차별? 가부장제? 난 그런 거 이해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위한 책. 특히 여성의 “현실”을 궁금해하는 남성들에게 권해보자.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지사지’의 그 생생한 체험을 맛보게 할 수 있다.

『성의 변증법』, 슬라미스 파이어스톤, 김혜숙역, 1983,

꽃빛 이름만큼이나 열정적으로 급진적인 이론을 주장했던 파이어스톤의 대표작. 급진적 페미니즘의 고전으로 여성과 남성간의 생물학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관계를 통찰력있게 분석하고 있어, 읽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제2의 성』, 시몬느 드 보바르, 조홍식역, 1986, 을지문화사

제2의 성은 전 역사에 걸친 여성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주체의 자리를 점한 남성에게 대하여 항상 타자로만 위치지어졌던 여성의 현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여성이 남성과 같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혁명적 주장을 펼친다.

〈또 하나의 문화〉에서 나온 책들: [새로쓰는 성이야기], [새로쓰는 결혼이야기],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말하기], [주부, 그 막힘과 트임], [남성문화 지배문화], [여성의 일하기, 세상바꾸기] 등

여성들이 만들어 가는 네트워크

안타깝게도 지금도 힘들고 해서 개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개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특히 남자와의 관계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스페이스에서 만난 여성들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남자와의 관계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스페이스에서 만난 여성들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이나 인터넷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남자와의 관계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스페이스에서 만난 여성들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남자와의 관계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스페이스에서 만난 여성들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쉽게 보았을 것이다.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현재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자. 여성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족적 단결을 다짐하는 집단이 많다고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여성 단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라 하면 바로 민우회가 아닐까. 민우회는 다양한 연립과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족과 성,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정보와 협진(함께가는 여성), 사이버 상담을 만날 수 있다.

한국 여성 단체 연합 (www.women21.or.kr)

가족/여아, 교육/여성학, 노동/농민, 복지/건강, 문화/생활공동체, 성/인권, 정치, 종교, 평화/통일, 환경 등 없는 분야가 없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의견과 토론이 있는 곳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가 바꾸기 위해 같이 일어나 먼저 알고 싶다면 이슈 토론방에 들어가보자.

여성들의 인터넷 여성 마당 (www.womanplaza.or.kr)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난무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통신을 하다보면 한 번 이상 느껴볼 것이라 생각한다. 게시판 글을 비롯하여 특히 채팅을 하다보면! 갑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갑갑함을 덜고 이제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여성 마당. 이 곳은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한 곳이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성폭력, 성폭력 말도 많다. 말이 많은 만큼 잘못 일어난다. 당신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성폭력에 대한 이메일 상담이 이루어지는 사이트.

달나라 달세포 (dalara.jinbo.net)

여성 뉴스와 여성학, 칼럼 등등과 수다! 설명할 수 없는 사이트.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 보면 좋겠다!

이화 여성 위원회 (nm.ewha.ac.kr/~lovewom)

이화여대 안에서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자치 단체인 이화 여성위원회의 사이버 공간이다. 이화 안의 작은 여성 모임들도 알 수 있고 페미니즘 문화제 등의 자료집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심심하면 읽을 거리라는 코너에서 나의 동성애적 기질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한 번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언니네 (www.joinwoman.com)

서울대 동아리 연합회 여성운동 모임인 언니네의 홈페이지이다. 페미니즘, 여성학에 대한 공부거리와 읽을 거리들이 가득하다. 프리다 칼로 등 페미니즘 미술가들의 그림도 감상할 수 있다.

명륜길 총여 학생회 (www.womskku.wo.to)

이 글을 쓰는 현재로서는 들어가지지 않는다. 조만간에 완성 될 것이라고만 믿고 있는 사이트.

정정현 (sosim.jinbo.net)

小心? 조심이란단. 그렇다면 소심이 무슨 뜻이지? '대심(大心)'을 지향하는 것이 살아남기 유리한 2000년 여기 이곳에서 자신의 소심함을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여성주의 웹진의 이름이 바로 그들의 담.

사이트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야 하겠다. 많고도 많은 사이트들 중 이 것밖에 알릴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다른 곳을 가고 싶다면 이 사이트들에 들어갔을 때 뜨는 배너를 누르자. 아니면 진보넷 (www.jinbo.net)에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다.